

# 잃어버린 '동업자 정신'...팬심도 잃을라

2일 신경전 과열로 부상 위험 노출 화해는 했지만 고의성 두고 입장차 제때 '주의' 주지 않은 심판도 책임

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올 시즌 15번째 맞대결. 가을야구가 멀어진 두 팀간 승부라 이날 잠실에는 올해 최소인 5512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그런데 경기 도중 얼마 되지 않는 팬들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이 나왔다.

### ●신경전의 재구성

KT 선발 김민은 1회와 3회 연달아 LG 아도니스 가르시아에게 몸 맞는 공을 던졌다. 제구가 안 된 슬라이더였지만 가뜰이나 부상에 예민한 가르시아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가르시아는 3회 2루로 슬라이딩하며 KT 2루수 박경수에게 태클을 가했다. 박경수는 5회 출루해 3루

로 향하던 중 LG 3루수 양석환에게 같은 슬라이딩을 했다. 이번에는 양석환의 차례였다. 6회 2루로 향하며 유격수 심우준에게 태클을 걸었다.

분위기는 8회 급속히 가열됐다. KT 주권의 투구가 LG 이형종의 몸쪽을 향했다. 이형종은 주권을 한참 동안 노려보며 불만을 표했다. 홈런을 때린 뒤 과도한 배트 플립을 행했고, 날아간 방향이는 이계성 구심의 가슴으로 향했다.

경기는 LG의 10-6 승리로 끝났지만 팬들은 실망했다. 끝자는 '동업자 정신' 실종이었다. 어떠한 이유론 불만을 느꼈다면 경기로 푸는 것이 맞다. 신체적인 위해는 유니폼을 입고 가하는 폭력이다. 가뜰이나 얼얼불은 팬심에 냉각기를 돌린다는 지적이 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고의' 두고 입장차이

결국 3일 시즌 최종 맞대결에 앞서 당사자들끼리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감독들도

입장을 표했다. LG 류종일 감독은 "이형종 중의 배트 플립이 고의라는 시각이 있던데 천만의 말씀이다. 동업자끼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나도 유격수 출신이라 태클을 많이 당해봤다. 선수를 향하는 게 아니라면 수비수가 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전해들은 한 야구인은 "감독은 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류 감독의 발언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고의가 느껴지는 배트 플립이었다"고 꼬집었다. 투수의 기를 죽이기 위한 액션인지, 일각의 지적처럼 누군가를 향한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도는 다분했다는 얘기가. 류 감독의 말대로 고의가 아니었다면 심판 혹은 포수에게 사과가 선행돼야 했다. 심판도 동업자다.

### ●뒤늦게 외양간 고친 심판진

물론 심판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을 정리할 기회는 있었다. 가르시아

는 두 번째 몸에 맞은 뒤 잔뜩 화가 났음을 표현했다. 이때 심판이 타석에서의 일을 베이스로 끌고 오지 말라는 내용으로 주의의를 줬다. 5회와 6회 슬라이딩 태클 상황은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6회 송구 방해 판정을 내려 병살타 처리했을 뿐, 제지는 없었다.

안일한 대처가 빈발성 투구와 배트 플립까지 이어졌다. 이형종이 던진 배트에 가슴 부위를 맞은 이계성 구심은 1루 덕아웃으로 향해 주의를 줬다. "빈발성 투구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즉각 퇴장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는 큰 충돌 없이 경기가 끝났다.

심판들에게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나 아웃, 세이프 판정은 물론 경기 전체를 관장하는 의무가 있다.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이를 제때 대처하지 못한 심판진에게도 이날의 불행사나운 광경의 일부 책임이 있다.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NC, 심규범·김종민 등 4명 방출

### 칼 빼든 공룡군단 구단 개편 신호탄?

NC 다이노스가 2일 투수 심규범, 포수 김종민 등 4명의 선수들을 웨이버공시했다. 정규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칼을 빼들며 대대적인 구단 개편을 예고했다. 일찌감치 가을야구가 좌절된 NC는 유영준 감독대행 체제 하에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 새로운 홈구장에서 시작하는 2019시즌에 앞서 부지런히 차후 시즌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 9월에도 내야수 조병호, 홍지운 등을 내보내며 이미 한차례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웨이버공시에도 제법 굵직한 선수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좌완 투수 심규범과 외야수 강구성은 1군에 종종 모습을 보였던 20대의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들 역시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NC의 이런 움직임은 구단 변혁기를 예고하고 있다. 2019시즌을 앞두고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변화까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나온다. 한 야구인은 "이렇게 많은 선수가 나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구단이 운영 차원에서 몸집 줄이기를 하려는 의도도 보인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구단 역사가 길지 않은 NC가 이제까지 보인 발걸음은 성적과 구단 운영 측면에서 꽤 인상적이었다. 또 한번의 도약을 노리는 숨고르기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KT 위즈 강백호(오른쪽)가 3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5회 우월 솔로포를 때린 뒤 이진영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잔여 6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추가하면 신인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인 31홈런에 달한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 강백호 시즌 27호 아치 신인 최다 홈런까지 -4

올 시즌 개막전 첫 타석 축포로 시작된 강백호(19·KT 위즈)의 홈런 행진은 시즌 막판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제 4개의 대포만 추가한다면 KBO리그 37년 역사 맨 꼭대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된다.

강백호는 3일 잠실 LG 트윈스전 0-3으로 뒤진 5회, 상대 선발 김영준에게 우월 솔로포를 뽑아냈다. 한가운데 몰린 속구를 놓치지 않고 만든 비거리 130m의 초대형 시즌 27호 아치였다.

이제 강백호는 1993년 김기태(현 KIA 타이거즈 감독)와 함께 신인 최다 홈런 2위에 랭크됐다. 역대 1위인 1996년 박재홍의 기록에는 3개, 신기록까지는 4개가 부족하다. KT는 이제 6경기만 남았다. 쉽지는 않지만 몰아치기 능력은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마냥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

무서운 장타 상승세도 대기록 가능성을 높인다. 강백호는 9월 이후 25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9월 20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고졸 신인 최초로 3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KT의 남은 6경기, 탈꼴찌 여부만큼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잠실 | 최익래 기자



SINCE 1929  
**SAMSUNGPHARM**  
삼성제약 HealthCare

건강 기능식품 GMP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삼성 MSM 100**  
건강기능식품

계단만 보면 뛰어 올라가고 싶다...

# 관절·연골

**유기황 MSM이란?**  
MSM은 연골, 인대, 연골조직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받은 소재입니다.

**전화주시면 30정 1통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30정 1통 무료**

▶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노화로 관절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
- ◎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분
- ◎ 무릎, 허리가 불편하신 분
- ◎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
- ◎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 ◎ 과체중으로 관절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분

용량 : 500mg × 30정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유기황 MSM 30정 1통 무료신청 ☎ 02-996-5837**